

잘못 내든 잘 내든 마음내는 모든 것 내면세계에 보라

25면에서 계속

육신을 두들겨패고 말로 아무리 해도 그걸 해결 되지 않습니다. 녹아지지 않아요. 과거에 마음으로 지은 것인데,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온 것인데 그걸 마음으로 고쳐야지, 그 구멍에서 마음으로 고쳐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니 됩니다. 그 구멍에서 나온 것은 그 구멍에서 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내면을 봐도 한마음이요 외부를 봐도 한마음이요, 제가 없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광대하고 묘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흑이 닳는데 흑을 때려 고 가니까 생명이 위태하다고 하고, 짐을 보니까 당신이 흑을 때려 내면 재수가 없어서 다 망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듣고 고민 고민 하다가 병이 더 심해졌답니다. 언젠가 산으로 올라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흑이 닳기에 한 것도 몸속에 있는 자생종생들의 한마음이 고장을 내서 그런 거니까 흑이 없어지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안으로다가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왔는데 흑이 없어졌더군요.

이 마음이 심성과화이기도 하고 심성의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 심성의화이나 심성과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을 현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익힌 용어보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그러지요. 구경물이 나올 듯하면 그 구경물을 새 물로 대체를 해서 쓰라고요. 이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가고 관습에 의해서 짐을 보고 무무털 털 해서 좋다는 날을 잡아서 가는데, 만약 그날 도와줄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간다면 아주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꼬달리고 욕심에 의해서 꼬달리고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설켜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에 순응하면서,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잘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하면서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각자 여러분이 닳았든 잘났든 돈이 없든 있든 그 거를 막론해 놓고 지금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잘난 어머니라도 나의 못 배우고 못난 어머니하고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 각자 닳았든 잘났든 잘난 남하고 못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자체가 그대로 능력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모두 '네놈 속에서, 너에게서 나온 거니까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가 진짜로 맡겨 놔줄 때 비로소 그 마음내는 대로, 마음 쓰는 대로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말한 게 한테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서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을 따라서 같구하지 마시고 오직 진실한..., 말하자면 어린이가 물에 질척 빠졌는데 말입니다, 부모

공부하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리 말을 해 드려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자유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내 몸을 벗어나야 하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합니다. 바쁜 대로 얘기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과 같습니다.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저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주머니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굴리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주머니 바깥으로 벗어나야 그 물주머니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지구를 벗어나고 지구를 벗어나야 모든 행성을 지배할 수 있는 태양계의 이치를 알고 태양 자체도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못해.' 하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이것을 꼭 해야겠어.' 한다면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자생종생들이 화해서 바로 보신으로서 능력을 갖춘다면,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천백억화신이 돼서 한생각에 나고 든다. 모든 것을 안으로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토해 내도 즐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죠. '바다를 삼켰다가 바다를 토해서 여러 만 중생들에게 응신으로서 응해 주신다.' 이거 이해가 안 같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나 하나의 원소 자체에서, 원자 자체에서 입자가 돼서 소립자도 되고, 입자 자체가 바로 소립자가 돼서 원자가 되고,

왔고 또 어떻게 생겼고 높이가 몇이나 되고 넓이가 몇이고 폭이 몇이고,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 소립자. 단 목마를 사람에게 물을 줄 줄 알고 내가 목마르면 물을 줄 줄 알아야만 이 도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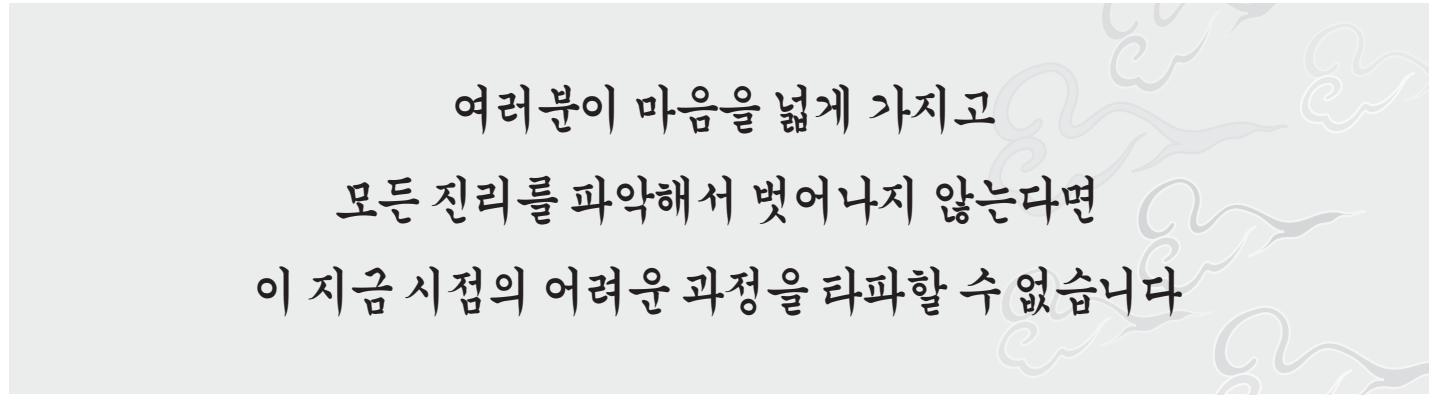
그러니 이 물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하고 우주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한 생각으로써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쪽 전자와 저쪽 전자의 양면을 합쳐 놓아서 전 것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작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컴컴하면 불을 켜고, 그 불을 켜서 밝게 하고 이렇게 움직여다녀, 겁이 있다면 이걸 들어서 갖다 먹고 또 편리한 데다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겁이 있는 것을 보기만 하고 겁이 여기 있다고 알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는 것도 소용없고 듣는 것도 소용없고 가고 오는 것도 소용없고 아는 것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내가 집어 먹기 위한 과정이지요.

모두가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마음 낼 줄을 몰라도 목석이니 무효고, 또 생명이 없으면 아예 그냥 생기지 않으니깐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모두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진실로, 생활 속에서 막바로 펴 나가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병이 들었다거나,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어떤 애고가 있다가든 인과성으로 그렇다든가 영계성으로 그렇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 그냥 맡겨 놓는 그 작업을 생활 속에서 자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고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씩이 자기 뿌리를 믿음으로써 바로 제 뿌리에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제 나무에서 익으니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 가지 맛이 나서 여러분이 만 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책을 읽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거는 자주 잊어버려서, 또 이곳에 소리가 울려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허허하...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4월 24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진리를 파악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시점의 어려운 과정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가 옆에서 보다가 '이것이 겁때기다, 알맹이다' 이런 거 찾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 마음 생길 여유도 없이 물로 들어가서 건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갈 때, 아주 조그마한 어린애를 남기고 죽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 어린애마저도 보 버리는 그 한 찰나, 생명이 끊어질 그 무렵, 다 보 버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 버리라고 살림을 몽땅 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걸어오실 때에 뒷발자취를 하나하나 짚어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걸어오는 사이 없이 걸어왔고 그대로 여기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이 했다는 얘기도,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음식을 잡쳐도 나 혼자 먹은 게 없고 내가 먹은 사이가 없더라. 그래서 공했다는 겁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그 뜻을 볼 때, 물질과 정신은 들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서, 과학이 발전이 돼서 물질과학으로써 만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과학으로써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본다면 예전처럼 물질과학으로 발전이 안됐을 그때 그 시절에는 화두를 받아 가지고도 잘 공부를 해냈을 텐데, 지금은 아는 게 많아서 화두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긴 자체가, 바로 움직여서는 자체가 화두라고 믿고

되겠죠. 이것이 '찰나찰나 어떤 것이 아니 되는 것이 없느니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죠.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것도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내 한생각에 철성이 되고 산신이 되고 약사가 되고 지장이 되고, 법신 보신 화신, 하다못해 물속의 용신까지도, 지신까지도 모두가 한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해 열심히 하시면 몸속에 들어 있는 여러분의 그 자생종생들에게 통신이 되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로 믿고 '주인공, 뿌리인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병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병을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너다.' 하고 내면에 진실히 믿고 봤을 때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돼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하는 겁니다. 사대로 통하게 되면 모든 자생종생들이 모자라는 데를 채워서 서로 작용을 해 나갑니다. 이게 기초적인 마음 법입니다.

지금 국내 각 지원이나 본원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있고, 외국 지원에서는 외국 사람도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공부 마음공부 하니까 여러분이 시들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음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고 이끌어 가고 있는 바로 자신의 생활과 몸으로부터 실천하는 공부죠.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수만 개가 퍼져서 아니 되는 게 없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돼지면 돼지 사람이면 사람 벌레면 벌레, 아니 드는 데가 없이 모습을 바꿔서 거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모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천 차만별로 그 모습이 회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보여 드려야 여러분이 납득이 되실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어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한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삼천 년 전도 없고 삼천 년 후도 없고 현실도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만 안다면, 즉 말하자면 정신의학, 정신전체물리학, 정신전문학, 정신철학 정신의학... 이 진리의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없는 자체를 한마음의 정신계로 투입할 수 있고, 정신계에 투입된다면 바로 물질계로 투입이 돼서 여러분은 한생각이 멀고 가까운 게 없이 들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가고 오는 것, 어디서 온 거를 아는 거, 오신통을 다 한다 해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왜 도가 아니라고 그랬냐. 오신통을 쓰고 오신통을 아는데도 왜 도가 아니라고 그랬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말라서 어떻게 불에다 구

불기 2553년(2009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몸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으니 무무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제 목 : 2009년 봉축 특집 축하광고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마감일 : 2009년 4월 22일(수요일)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본 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남부	055)746-9778
경남동부	055)353-1196
경남서부	055)355-7472
광주전남	062)384-3009
전 북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현 대 불 교 신 문 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해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